

북스

Books

한장의 그림·하나의 역사적 장면 추려내
한국인 삶·미학·정신세계 문화사적 조명

문화동네 인문학 시리즈 '키워드 한국문화' 1~5권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핵심어를 추려낸 뒤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삶과 미학, 정신세계를 문화사적으로 조명한 문화동네 인문학 시리즈 '키워드 한국문화' 1차분 다섯 권이 출간됐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 문고판 인문학 시리즈에 비해 분석 대상을 미시사적으로 정한 다음,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학자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파고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리즈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오늘날에도 생생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1차분이라 우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처음 소개되거나 이제서야 그 진면목을 드러낸 것도 있다.

먼저, 고문헌 연구가 박철상씨가 쓴 1권 '세한도-천년의 믿음, 그림으로 태어나다'(1만1천원)는 추사 김정희가 누벨을 쓰고 유배를 갔을 때 변함없이 의리를 지킨 역관 이상적과의 우정과 학예(學藝)일치가 구현된 조선 문인화의 가치, 그림 속에 녹아든 높은 학문의 경지를 따라가며 새로운 그림 독법을 시도했다.

박씨는 "그동안 '세한도'에 대한 평가가 예술적인 부분에 치우쳤는데, 문화사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19세기를 읽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한다. 책은 추사에 대한 국문 과정과 추사의 육성이 실린 '추곡일기(推鞠日記)'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추사가 30년에 걸쳐 연구한 문인화 기법을 풀이한다.

정조 어찰의 발굴부터 해석까지 전과정에 참여했던 안대희 교수가 쓴 '정조의 비밀편지-국왕의 고뇌와 통치의 기술'(2권·8천800원)는 지난해 공개돼 화제가 된 정조 어찰 297통을 통해 정조의 내면심리와 당시 정치상을 파헤친다.

안 교수는 노론 벽파 핵심인물 심함자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 어떤 정치적 태도를 주문하거나 신하들에게 상소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의 수완을 발휘한 정조를 '마추 정치의 달인'으로 그리다. 또, 상미가 급해 화를 잘 냈고 신하들에게 선물을 내릴 때 꼭 몇 마디 말이라도 써줬던 정조의 인간미도 함께 전한다.

정병설 교수의 '구운몽도-그림으로 읽는 구운몽'(3권·1만1천원)은 아무도 주



목하지 않았던 '구운몽'을 그린 이야기그림 30여 점을 통해 '구운몽'이 들려주는 조화와 낭만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김문식 교수의 '왕세자의 입학식-조선의 국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4권·8천원)는 왕세자 입학례를 통해 조선시대 제왕 교육의 면면을 살펴본다.

서신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조선인의 유토피야-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꿈꾼 세계'(5권·8천800원)는 안경의 '몽유도원도' 등 이상향을 그린 그림을 통해 옛사람들이 꿈꾼 세상을 재구성했다. 억압이 없는 무위의 통치, 누구나 맘 쫓겨 일해 먹고 사는 세상을 바랐던 선인들의 꿈을 되짚어 보았다.

이번 시리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상에 익숙한 현대인들을 위해 컬러도판 등 풍부한 자료를 실고 있다는 점이다. 1권 '세한도'와 2권 '정조의 비밀편지'에는 각각 추사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와 정조 어찰의 실제 모습을 실었다. 3권 '구운몽도'와 5권 '조선의 유토피야'에서는 '구운몽'의 장면을 그린 실제그림과 안경의 '몽유도원도' 등 참고도판을 수록했다.

또한 각각의 책은 인문학 석학들이 들려주는 두 시간짜리 강의처럼 읽힌다. 실제로 이번 시리즈 1차분 5권의 저자는 오는 2월 '시민들과 함께하는 키워드 한국 문화 교양강좌'를 무료로 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vN 프로 '를러코스타'
남녀 탐구생활 책으로

종합 오락 채널 tvN의 인기 프로그램 '를러코스타'의 '남녀 탐구생활'이 책으로 나왔다.

tvN 를러코스타 제작진은 소개팅 편, 공중화장실 편, 방귀 트기 편, 형제 자매 싸움 편 등 17편의 화제작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펴냈다.

책은 각 편마다 '알쏭달쏭 심리학' 코너를 추가해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 남녀는 어떤 전략을 쓸까?'(소개팅편), '불일 보기도에 남녀의 색다른 심리가 숨어 있다?'(공중화장실 편) 등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남녀의 심리 탐구 내용을 한층 더 보강했다. <에디터·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식 프라이م
EBS 지식프라이미 제작팀 지음

1998년 그니자라는 경제학자가 이스라엘 놀이방을 대상으로 제멋든 실험을 했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온 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자 벌금제도를 도입했다. 결과는 늦게 오는 부모가 더 늘었다. 미안함, 책임감 같은 감정들이 '벌금'이라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한 셈이었다.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구축(驅逐) 효과'라고 부른다. 돈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감정을 몰아낸다는 설명이다. 사람은 물질적 이익이나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

우리시대 대표 지성들이 전하는 명품지식 바이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사회적 감정도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EBS TV를 통해 방영되던 교양 다큐 '지식 프라이미'는 5분 분량의 짧은 내용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현재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지식'의 모태가 됐다. 제작진은 방영 당시 시청자들의 재방송 요청이 이어지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피소드를 묶어 '지식 프라이미'를 출간했다.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키워드를 쉽게 풀이한 이 책은 특히 단순한 지식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 그 지식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진으로는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해 화제가 됐던 금태섭(변호사), 1930년대 근대 조선을 다룬 책인 '경성기담', '황금강 시대' 등으로 유명한 전봉관 교수,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등 경제, 인문학, 통계, 법률, 심리 등 전문가 11명이 필자로 참여했다. 책은 '새로운 시장을 읽는 상상력-뉴마케팅',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반란-행동경제학', '내 마음의 우주-일상심리', '문제를 읽는 법-사회문제', '법정 뒤에 숨은 희망과 절망-판례와 법리', '어제와 오늘의 다른꼴과 많은 풀-식민지 역사'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50개의 테마와 함께 각 장마다 실려 있는 박스들은 풍성한 내용으로 책을 더욱 알차게 만든다. <멀리언하우스·1만3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최인호의 인연=삼 투병 중인 소설가 최인호 씨(64)의 신작 에세이집. 2008년 선답에세이 '산중일기'로 독자들과 사랑을 받은 최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인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했다. 최씨는 "풀이켜보면, 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해준 것은 바로 '인연'이라는 짐다리였다"고 말하며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삼 투병 중에 쓴 글이라 그런지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2천원>

▲발해풍의 정원=한국의 나이로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 박찬순(64)씨의 첫 소설집. 등단작 '가리봉 양꼬치'를 포함해 10편의 단편과 1편의 중편이 실려 있다. 표제작 '발해풍의 정원'은 '가리봉 양꼬치'에 이어 조국을 떠난 '경계인'들의 고난 속에 품은 희망을 애절한 분위기로 다뤘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백두대간의 설화를 찾아서=환경운동가이자 시인인 김하돈씨가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수집한 설화 1천여 편 중 50편을 추려 담았다. 강원도 오세암의 다섯 살 동자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리산 마고할미 이야기까지 군사분계선부터 지리산까지 산맥을 따라 내려가며 구수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 어 놓는다. <호미·1만3천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2006년 뇌과학 학술지 '뉴로케이스'에 '과잉기억증후군(Hyperthymia)' 사례로 실려 주목받은 미국 여성 질 프리이스의 저서집. 13년 전 오늘 오후 6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낱알이 떠올릴 수 있는 저자의 기억력이 늘 축복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털어 놓는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례가 기억상실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북하우스·1만2천원>

▲동원된 근대화-박정희 개발 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박정희 독재체제 연구에 천착해온 진보파 사회학자 조희연 교수의 연구서. 박정희 정권 시대를 '산입화 대 민주화', '성장 대 폭압' 등 양분법적인 해석을 넘어 복잡적 틀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가 경제적 효율성과 불안정이 함께 존재했으며 체계모니터 체제이면서 동시에 균열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후마니타스·2만원>

▲현주의 손으로 짓는 이야기=배우 김현주씨의 재기 발랄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집이다. 연기 경력만큼 쌓아온 바느질 이야기와 손때 묻은 소품들, 그리고 그너만의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낸다. 10여 년 전부터 직접 만들고 사용했던 패브릭 가방, 파우치, 슬리퍼 등 여러 가지 소품들과 그에 얽힌 사연 등도 공개했다. <살림Life·1만3천원>

▲잉글리시 페이션트=1997년 아카데미 9개 부문 상을 휩쓴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원작 소설. 영화의 원작 소설 역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버크상을 수상(1992년)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며 세계 30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된 베스트셀러다. <그책·1만3천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assekkorea.com. 공인사실/평가, 근린사실/상가, 주택/지점, 공장/토지, 특별수령장, 아파트/빌딩, 임대, 전세, 매매, 분양, 임대차, 권리분석, 최고수익률/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신속한 명도/정확한 권리분석/최상의 대응.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수원지구 롯데마트임대. 멜리스타워빌딩. 1층: 의류,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의류아울렛,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아파트, 전문식당, 의류아울렛, 아웃도어. 3층: 병, 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 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 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비독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 영아, 수악,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수원동 롯데마트 옆 10x10x6m코너 상업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당 225만원. ※점포임대, 수원동 주변대도면(35m,4번로) 3층사무실 140㎡ ㎡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합. 수원동 상업전차역 외환은행건물(메리퀸센터) 2층 620㎡ ㎡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수원동 상업전차역 외환은행건물(메리퀸센터) 3층 620㎡ ㎡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서울) 퍼스트부동산. 전 국 판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환영.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